

# 삼성SDI, 영업이익 46% 급감

## 2/4분기 221억원에 순이익도 43% 줄어 ... PDP패널 생산차질

삼성SDI는 2/4분기 영업이익이 221억원(해외법인 연결기준)으로 1/4분기보다 46% 떨어졌다고 7월25일 발표했다.

2/4분기 매출액은 1조6250억원으로 1/4분기 대비 6% 떨어졌고 순이익도 303억원으로 43% 감소했다.

2005년 2/4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36%, 매출은 12% 하락한 반면, 순이익은 3.6% 증가한 것이다.

삼성SDI는 환율 및 판가 하락, 경쟁심화 등 전반적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PDP패널을 생산하는 3라인의 6면취 전환 이후 신기종 적용에 따른 라인 불안정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점 등이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.

국내 본사 기준 실적은 매출액 1조2309억원, 영업이익 248억원으로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%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무려 464% 증가했다.

사업부문별 매출은 PDP 3820억원, 2차전지 1770억원, 모바일디스플레이 4970억원, 브라운관(CRT) 5520억원 등을 나타냈다.

PDP는 매출이 1/4분기에 비해 9% 감소했으나 판매량은 1.8% 증가한 56만대를 기록했다.

6면취 전환 이후 불안했던 생산라인이 6월부터 안정화한 가운데 HD 비중이 2005년 2/4분기 21%에서 59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50인치 시장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 전망이 밝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.

2차전지는 1/4분기 대비 매출이 1% 증가했으며, 판매량은 3%가 늘어 6000만개를 돌파했다.

삼성SDI는 2차전지의 고용량 비중을 2005년 2/4분기 28%에서 58%로 확대하고 있으며, 수주 확대와 거래선 개척에 따라 생산량을 월 2200만개에서 월 3400만개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모바일디스플레이(MD) 부문의 판매량은 4800만대로 1/4분기에 비해 2% 감소했으며, 브라운관 부문은 판매량이 2% 증가한 1320만대를 판매했다.

한편, 삼성SDI는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김순택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/4분기 실적 발표회를 가진 데 이어 <PDP, 모바일 디바이스, 에너지 기반의 성장 중심 경영>을 골자로 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.

삼성SDI는 PDP에 대해 2007년 2/4분기 50인치 전용라인을 가동해 50인치, 58인치, 63인치 풀HD 라인업을 구축하는 등 2009년까지 생산능력을 1000만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며, 전지사업은 2010년 시장점유율을 25%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.

아울러 브라운관 사업은 연평균 50%의 판매증가를 통해 2010년 판매량 목표를 2500만대로 설정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강영두 기자) <저작권재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7/26>